

## 표준진단표를 활용한 전북지역 토마토 스마트팜 실태 분석

장지혜\*, 김홍기\*, 노재종\*, 이정임\*, 최혜진\*

\*전라북도농업기술원

e-mail: jhjang24@korea.kr

###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omato Smart Farm in Jeon-buk Area Using Standard Diagnostic Table

Ji-Hye Jang\*, Hong-Ki Kim\*, Jae-Jong Noh\*, Jeong-Lim Lee\*, Hye-Jin Choi\*,

\*Jeollabuk-do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 요약

농업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ICT 융복합기술의 농업적 이용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유통·경영 등 농업 전 분야에 ICT 융복합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는 스마트팜 확산 정책을 통해 ICT 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팜을 농업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영농 편이성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스마트팜을 도입하는 농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통한 전북지역 스마트팜 농가는 121호로 작목에 따른 스마트팜 도입율은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화훼 농가순이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내 토마토 스마트팜 농가의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실태 및 활용 수준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스마트팜을 육성하고, 토마토 스마트팜 시설 및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시설토마토 경영표준진단표를 활용하여 전북지역 스마트팜 토마토 농가 표준 진단을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장수, 김제, 정읍, 완주, 익산이며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이 설치된 토마토 스마트팜 농가 13호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종합평가진단을 위해 농가 현황을 비롯하여 시설 및 자동화, 환경관리, 작물관리 및 경영관리 4분야 25 세부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세부평가진단의 단계별 수준은 1~5단계로 국내 평균 미만, 국내 평균, 국내 중상위, 국내 상위, 최고 선진 수준으로 적용하였으며 스마트팜 상위 20% 평균, 하위 20% 평균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진단점수는 상위농가는 93.5/100점, 하위농가는 79.9/100점으로 상위농가는 하위농가 대비 경영관리, 시설 및 자동화, 작물관리, 환경관리 순으로 우수했다. 상위농가는 경영관리 23.1/25점, 시설 및 자동화 22.2/25점, 작물관리 18.5/20점, 환경관리 29.7/30점이었고, 하위농가는 경영관리 16.3/25점, 시설 및 자동화 19.5/25점, 작물관리 15.9/20점, 환경관리 29.7/30점으로 조사됐다.

세부항목으로 상위농가의 경영관리는 협업 경영을 통해 생산비용을 줄이고 대형유통업체나 백화점직거래를 통해 소득이 높았고, 시설 및 자동화는 가온/감온 시설 및 농작업기계화에서 작물관리는 품종선택, 육묘부분에서 차이를 보였다.

T. 063-290-6124, F. 063-290-6095 jhjang24@korea.kr